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하늘에도, 땅에도, 음식물에도
방사선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방사선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방사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음식물 등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라고 하고,
CT촬영, 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인공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주변으로부터 1년에 약 **2.4 밀리시버트(mSv)***의 **자연방사선**을,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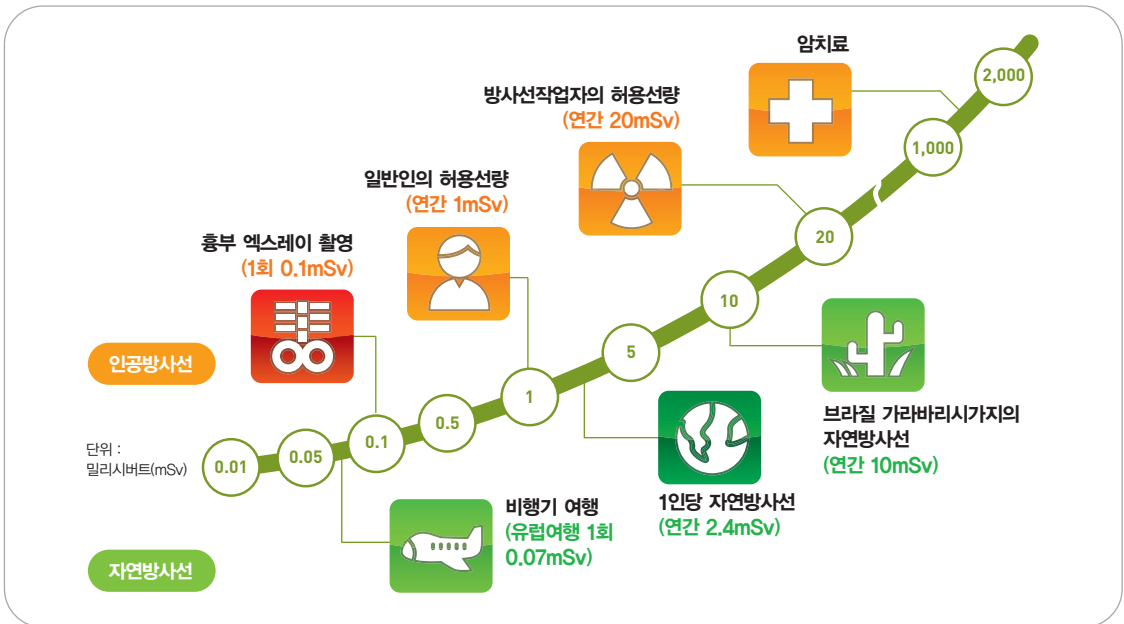
약 **0.1 밀리시버트(mSv)**의 **인공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양은 인체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방사선의 단위 '시버트(Sv) :**

1 시버트(Sv)는 1,000 밀리시버트(mSv)이며, 1 밀리시버트(mSv)는 1,000 마이크로시버트(μ Sv)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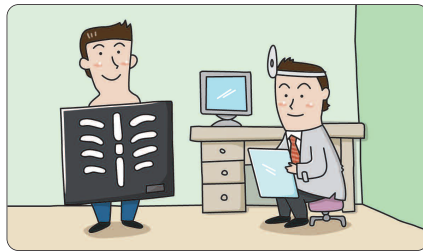


정부는 자연방사선이 아닌 인공방사선을 사용할 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이 연간 1 밀리시버트(mSv)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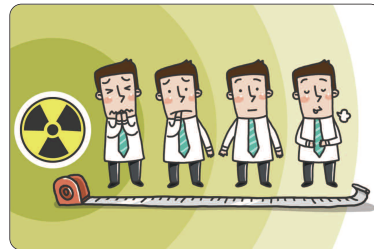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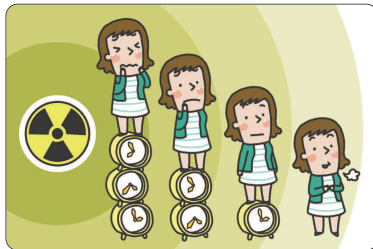


방사선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방사선은
물질을 뚫고 나가거나 반사하고 이온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선 촬영, 암치료는
방사선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방사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들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 하나 더! |

“일본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요오드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3월 29일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요오드가
공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생활한다면?



요오드의 영향은
일반인 허용선량 1 밀리시버트(mSv)의 약 30,000분의 1,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의 약 3,00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평소에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 전역의 방사선량도 365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 | 01 | **전국 71개소**에 방사선 측정기로 대기 중에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 02 | 누구나 우리 지역 주변의 방사선량을 www.mest.go.kr과 iernet.kins.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03 | 주변국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 공항과 항구에 **방사선 측정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오염이 있는지 측정합니다.
- | 04 | 우리 국토에서 조금이라도 방사선량이 증가한다면 먼지, 빗물, 바닷물, 흙에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있는지 **더 자세히 측정**을 합니다.



궁금해요

- Q. 방사선에 노출되면 몸이 오염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하나요?**
- A.** 햇빛에 노출되었다고 몸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방사선도 빛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므로 오염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Q. 다시마나 요오드 제품을 섭취하면 방사선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나요?**
- A.**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매우 적은 양이어서 약의 효능은 적습니다. 100 밀리시버트(mSv) 보다 높은 수치일 경우, 정부의 안내에 따라 요오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전에 요오드 제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